

花郎道の 宗教的 性格과 仙·佛·儒와의 關係

安 昶 範

目 次

- | | |
|-----------------------|-------------------------------------|
| I. 序 論 | 1. 花郎道の 天賦的 仙·佛·儒 思想의 發生
學的 淵源研究 |
| II. 花郎道の 宗教的 性格 | 2. 花郎道の 外來 仙·佛·儒 三教受容說의
根據批判 |
| 1. 花郎道와 民族宗教 | |
| 2. 花郎道の 두레 및 巫俗說의 誤謬 | |
| III. 花郎道와 仙·佛·儒와의 關係 | IV. 結 論 |

I. 序 論

비록 原始時代라 할지라도 人間이 集團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生活이 있고, 生活이 있으면 言語와 教育이 발생하고, 아울러 慣習과 文化가 있게 되며, 자기나름의 宗教·倫理 등의 思想이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韓民族도 예외는 아닐터이니 集團生活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나름의 言語·教育·慣習·文化를 가졌을 것이며, 아울러 宗教·倫理 등의 社會生活에 필요한 일련의 思想을 가졌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韓民族의 歷史的 不運으로 인하여 固有思想을 계고하여 불만한 史料들이 인멸되어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자, 韓民族에게는 思想이라 할만한 것이 없고, 非合理的 巫俗思想과 외래의 仙·佛·儒 思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것 같다.

그래서 韓民族의 主體思想이요, 歷史發展의 原動力이었던 花郎道の 思想的 背景을 논함에 있어 學者마다 見解가 각양하다. 어떤 學者는 花郎道를 원래부터 合理的 民族宗教로 보는가 하면, 어떤 學者는 古來의 神仙思想을 계승한 것이 花郎道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學者는 花郎道の 前身을 非合理的 巫俗思想 또는 新羅의 嘉俳의 경기대회와 같은 두레의 일종으로, 심지어는 토테미즘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花郎道를 非合理的 固有的 傳統思想 위에 외래의 仙·佛·儒 思想을 創始부터 受容·習合한 半外來思想으로 보는 見解들이 허다히 있다. 이러한 견해가 통설화되었는지 中等教育教材와 일부 高等教育教材에까지 기술되어 가르쳐 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見解가 만약 根據없는 歪曲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花郎道の 歷史的·思想的 脈絡을 탐구하여 花郎道가 원래 合理的 民族思想이나, 아니면 평범한 두레 내지 非合理的 巫俗思想이나를 밝히고, 둘째 花郎道와 仙·佛·儒 三敎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花郎道에 妙合되고 있는 仙·佛·儒가 天賦的 固有思想이나 아니면 外來思想이나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本稿에서의 所論은 어디까지나 記錄史觀에 의한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고, 實證史觀에 의한 주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II. 花郎道の 宗教的 性格

花郎道가 원래 佛敎나 基督敎의 青年會와 같은 合理的 民族宗教의 特殊敎團이나 아니면 非合理的 巫俗思想 내지 두레의 일종이나 하는 문제이다. 花郎道가 合理的 民族宗教의 特殊敎團이라면 뚜렷한 思想과 哲學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록한 經典과 行動訓인 戒律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非合理的 巫俗思想 내지 두레의 일종이라면 뚜렷한 經典과 戒律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花郎道の 中心思想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經典과 戒律의 有無問題 및 花郎道の 宗教性問題를 알아 보고, 두레 및 巫俗說의 誤謬를 지적하고자 한다.

1. 花郎道와 民族宗教

첫째, 결론부터 말하면 上古時代부터 新羅時代까지 韓民族에게 神仙思想이 大行했고, 이 思想을 계승한 것이 花郎道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正史라 불리우는 「三國史記」에 檀君王儉을 仙人이라 하였다.¹⁾ 즉, 檀君王儉을 神仙이라 칭한 것이다. 이는 神仙思想이 檀君 또는 그 이전부터 발원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靑鶴集」에 따르면 神仙思想이 檀君 이전 桓因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桓仁(桓因)은 東方仙派의 祖宗으로서 그의 뜻을 그 아들 桓雄에게 전하니 桓雄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東方의 族屬들을 敎化하였으며, 다시 桓雄의 아들인 檀君이 그 事業을 계승해서 一千年 동안 세상을 다스리다가 阿斯達에 들어가 仙去하였는데, 그 후 그 道가 文朴氏에게 전승되고, 文朴氏는 檀君의 道를 新羅 四仙의 한 사람인 永郎에게 傳授하였다고 한다.²⁾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에서도 말하기를 우리 東方은 文朴이 桓因에서 연원한 神仙思想을 얻음으로써 清潔之學을 전하게 된 것이라 하고……文朴氏로부터 乙密·永郎·晏留·普德·聖女들에 전

1) 平壤者 本 仙人 王儉之宅也, 「三國史記」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第五, 十一, 東川王 21年條.

2) 趙汝籍, 「靑鶴集」, 「揆園史話·靑鶴集」(影印合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p. 153 참조.

하여 진 것으로 되어있다.³⁾

여기에 등장한 桓因(桓仁)·桓雄이 歷史科學的으로 볼 때, 非實證的인 人物이라 할지라도 檀君 이전에도 地上에 人間이 實存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神仙思想이 檀君 이전부터 발원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神仙思想이 檀君을 거쳐 文朴氏를 매개로 永郎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永郎은 述郎·南郎(일명 南石行)·安郎(일명 安詳)과 더불어 新羅 四仙의 하나로 꼽히는 人物이다. 그러므로 檀君의 神仙思想이 文朴氏를 매개로 新羅 四仙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高麗 毅宗이 그의 즉위 22년 3월 戊子日에 내린 新令 가운데 “仙風을 숭상한다. 옛날 新羅에 仙風이 大行하여 그로 말미암아 龍天이 歡悅하고 民物이 安寧하였다”고⁴⁾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上古時代부터 전래된 神仙思想이 新羅 四仙에 이르러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神仙思想이 新羅에서 大行했고 花郎道가 新羅에서 創設되었다면 兩者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聯關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羅 四仙이 遊娛하던 遺跡인 高城의 三日浦, 通川의 四仙峰과 叢石亭, 杆城의 仙遊潭, 金剛山의 永郎峰, 長淵의 阿郎浦와 江陵의 寒松亭 등이 모두 嶺東의 勝地이면서 山水間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四仙의 行態와 風流를 따룬 詩文이 花郎들의 生活風을 연상시키고 있다.⁵⁾ 그뿐만 아니라, 新羅 花郎이 每事에 대처하는 態度가 대범하고 그 行動거지가 호탕하여 俗事에의 집착이 약착스럽지 않는 면을 드러내는 점이라든지, 山水間을 傲遊하며 팔자 좋게 지내는 生活方法이라든지 하는 것은 永郎을 비롯한 新羅 四仙의 生態와 방불하다. 이러한 점을 들면서 車柱環은 神仙의 生活風이 花郎道와 같은 形態의 修練集團을 이끌어 냈으리라고 推定하고 있다.⁶⁾ 또한 玄相允 역시 神道の 眞實·純善·淸美의 理想이 花郎道の 人格教育에 類似近似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花郎道는 神道의 一方面이요 一形態이니 알기 쉽게 말하자면 花郎道는 神道古來의 理想을 一層 實際化 具體化 人格化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⁷⁾ 즉, 花郎道는 上古時代의 神仙思想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한편, 花郎을 仙郎·仙·仙風·國仙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仙”字는 神仙의 “仙”字를 의미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花郎道와 神仙思想은 同系思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檀君의 三子가 세웠다는 江華島 三郎城의 “郎”과 新羅 四仙인 永郎·述郎·南郎(일명 南石行)·安郎(일명 安詳) 등의 “郎”과 花郎의 “郎”이 모두 같은 글자이다. 여기에서도 花郎道는 檀君時代 또는 그 이전부터 발원되고 神仙思想과 同系思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확정적인 것은 新羅 第二十四代 眞興王이 神仙(思想)을 크게 숭상하여 原花(花郎의 前身)를 만들었다고 집적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⁸⁾

3) 吾東則文朴得桓因之源 傳爲潔淸之學……中略……其書傳自文朴 乙密 永郎 晏留 普德 聖女之流焉: 李能和, 「朝鮮道教史」, 第二章 朝鮮壇君 神話最近於道家說, (影印本, 서울: 中大韓國學研究所, 1977, pp. 13~14)

4) 遵尙仙風 新羅仙風大行 由是 龍天歡悅 民物安寧: 「高麗史」 世家篇, 世家 卷第十八, 毅宗 22年 (1168) 3月 戊子日條.

5) 「新增東國輿地勝覽」 해당 名勝의 註記 참조.

6) 車柱環, 「韓國道教思想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pp. 146~149 참조.

7) 玄相允, 「朝鮮思想史」, 서울: 民族文化社, 1978, p. 17.

8) 第二十四 眞興王……又天性風味 多向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이상의 記錄이나 論據에 의하면 花郎道는 神仙思想과 同系思想이며, 그 思想的 根源은 上古時代부터 發源되었다고 보는 수 밖에 없다.

둘째, [三國史記]의 崔致遠鸞郎碑序에 花郎道가 분명히 宗教라는 점과 그 思想의 윤곽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그 原文과 國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曰 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

위 原文을 國譯하면 다음과 같다.

崔致遠鸞郎碑序에 이르기를 나라에 본래 玄妙之道가 있으니 이를 風流라 한다. 이 宗教를 創設한 根源은 仙史에 상세히 실려있거니와 원초적으로 三教의 思想을 이미 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生命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感化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온즉 孝道하고 나아가면 國家에 忠誠을 다하는 그것은 魯나라 司寇(孔子)의 教旨과 같고, 또한 하염없는 일에 處하고 말 없이 가르침을 行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老子)의 宗旨과 같으며, 모든 惡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善한 일을 받들어 行하는 그것은 竺乾太子(印度의 釋迦)의 教化와 같다.⁹⁾

여기에서 花郎道와 기타 思想과의 關係를 밝히면, 鸞郎 즉 花郎=玄妙之道=風流=設教之源의 教 즉 宗教=仙史의 仙 즉 神仙思想=包含三教 =接化群生이다. 다시 말하면 花郎·玄妙之道·風流·宗教·神仙思想·包含三教·接化群生이 相互等式關係이다. 따라서 花郎道는 前述했던 神仙思想과 同系思想으로서 忠孝思想(五倫思想)으로 대표되는 孔子의 儒教思想이나, 無爲思想인 老子의 道教思想이나, 慈悲思想이 中心인 釋迦의 佛教思想을 원초적으로 본래 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生命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感化시키기 때문에 玄妙之道이며, 일명 風流教라고도 불리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오한 思想體系를 가진 花郎道를 宗教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우기 하나의 宗教이면서 三教의 思想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花郎道는 이들 宗教보다 더욱 광범한 宗教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三教가 合理的인 宗教라면 花郎道 역시 당연히 合理的인 宗教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花郎道가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원초적으로 본래 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思想이 韓國에 전래되기 전에 어떻게 花郎道가 이들 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닐 수 있는냐 하는 의문을 일반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 叙述이나 原文解釋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나 자세한 것은 後述하기로 하고 이 곳에서는 “設教之源”의 “教”가 宗教를 의미하는 문제에 대해서 說明코자 한다.

“設教之源”의 “設教”와 「周易」의 “聖人以神道設教”의 “設教”가 동일한 語句인데 여기에서의 “教”가 宗教를 의미한다고 辭典이 입증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만약 “教”를 “가르칠교”字로 해

9)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37年條 崔致遠鸞郎碑序에 대한 國譯으로서 本解釋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먼저 “花郎道의 外來 仙·佛·儒 三教 受容說의 根據批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10) 張三植編, 「大漢韓辭典」, 서울:進賢書館, 1979, 教字참조.

석한다면 “設教”의 “設”字는 陳·作·置之 뜻으로서 “設教”의 뜻은 “가르침을 創設하다”는 말이 됨으로 “設”字는 부당한 표현이 되며, “設”字 대신 “說”字를 썼어야 옳은 표현이 된다. 반대로 “教”를 “종교교”字로 보면 “設教”의 해석은 “宗教를 創設하다”는 말이 됨으로 文脈上 意味가 통한다. 이러한 理由에 근거하여 “教”를 宗教로 풀이 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花郎道는 하나의 宗教集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면 반드시 風月道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숨을 내리어 良家の 男子 가운데 德行 있는 耆를 뽑아서 花娘(郎)이라¹¹⁾ 하였다 하고, 「三國史記」에는 아름다운 男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여 花郎이라 이름하고……서로 道義를 연마하며 가락을 즐기고 山水間을 찾아 다니면서 유람하였는데 먼 곳이라도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賢佐忠臣이 예어져 나오고 良將勇卒이 이에서 생겨 났다.¹²⁾고 했다.

이러므로 花郎道는 國家를 수호하고 부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特殊教育集團이라 할 수 있고, 오늘날 靑少年層에 心身鍛鍊運動으로 유행되고 있는 合氣道나 跆拳道 역시 그 淵源을 찾으면 花郎道 風月道 風流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花郎道가 特殊教育敎團이라는 점과 宗教的 性格을 갖고 있다는 점 등 兩者를 묶어 생각하면 花郎道는 民族宗教의 特殊敎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佛敎·基督敎가 있고, 그 속의 靑少年으로 선발·구성된 靑年團體와 비유된다.

세째, 民族宗教의 經典과 戒律이 있다. 經典으로서 81字로 된 天理를 밝혀 준다는 天符經이 있고, 天訓·神訓·天宮訓·世界訓·眞理訓 등 五訓으로 된 三一神誥가 있다. 戒律로서 336條로 된 參佞戒經과 新羅에 世傳되었던 世俗五戒가 있다.¹³⁾ 經典과 戒律이 있다는 그것은 民族宗教가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宗教와 經典 및 戒律은 相互不可分的이어서 經典과 戒律이 있으면 반드시 宗教가 있고, 宗教가 있으면 經典과 戒律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花郎道가 民族宗教의 特殊敎團이라면 위 經典과 戒律은 花郎道의 經典과 戒律이라 할 수 있다.

네째, 花郎道를 民族宗教로 보는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申采浩에 의하면 花郎道는 아득한 먼 옛날부터 발원한다. 즉 檀君이 수도祭壇을 창설하였는데¹⁴⁾ 花郎은 본래 수도祭壇의 武士 곧 그 때 선비라 칭하던 耆로서 高句麗에서는 皂衣를 입어 皂衣仙人이라 하고, 新羅에서는 美貌를 취하여 花郎이라 하였다는 것이다.¹⁵⁾ 그래서 申采浩는 花郎道를 이

11)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 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改爲花娘:「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12) 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37年條.

13) ① 宋鎬洙, 「韓民族的 뿌리思想」, (서울:인간연합, 1983)에서 著者는 天符經·三一神誥·參佞戒經이 韓民族的의 固有經典이며 戒律임을 고증하고 있다.

② 安昶範, “世俗五戒는 民族固有信仰의 戒律”, 月刊「廣場」(서울:세계평화고수협회), 1984年 10月號(통권 134號)에서 著者는 世俗五戒가 圓光의 作이 아니라, 檀君때부터 전승되어 온 民族宗教의 戒律임을 밝혀 두었다.

14) 申采浩, 「朝鮮上古史」, 第一篇 수도時代, 第二章 大壇君王儉의 建國, 一, 朝鮮最初의 一般信仰의 壇君,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上), 서울:螢雪出版社, 1979, p. 77.

15) _____, 「朝鮮史研究草」,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 二, 郎·儒·佛 三家의 源流, 上揭書(中), p. 104.

民族宗教의 魂이라 하고 있다.¹⁶⁾

崔南善은 「朝鮮常識問答」에서 朝鮮에는 예로부터 固有信仰이 있어 그 名稱은 “밖의 뉘” 뒤에 변하여 “부루”요, 그 主旨는 天道를 實現함에 있었는데 이 民族教는 儒教·佛敎에 앞서서 있어 오고, 儒教·佛敎가 들어 온 뒤에도 그대로 나란히 존재하였고,¹⁷⁾ 이 敎團의 中心된 聖童을 風月主·源花·花郎·國仙 또는 仙郎이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이 敎團에서 지키는 信條와 德目を 風月道·風流敎·花郎道 또는 仙風이라 일컬었다고 했다.¹⁸⁾

또한, 金得輓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傳承宗教로 무당敎와 鄉土祭와 宗團神敎가 있었다 한다. 이 세 가지 傳承宗教는 모두 古神(仙)敎에 연원을 두지만 무당敎는 巫覡을 통하여 계승되어 오고 鄉土祭는 城隍祭·洞祭·山神祭·堂山祭 등의 民俗信仰으로 계승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宗團神敎는 우리가 하느님 즉 天神을 의식하면서부터 合理的 宗教로 발전하여 이것이 扶餘에서는 代天敎, 三韓에서는 天神敎, 新羅에서는 崇天敎와 花郎團, 渤海에서는 眞宗敎, 遼나 金에서는 拜天敎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리고 高麗 때에는 王儉敎니 在家僧이니 하여 전승되었지만 佛敎에 눌리어 크게 발전하지를 못하고, 李朝 때에는 儒敎에 눌리어 일어나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안 仙史, 花郎世紀, 神誌秘詞 같은 것이 事大主義者의 손으로 불살리어 宗團神敎는 거의 명맥이 끊기었다가 舊韓末 羅喆에 의하여 부활된 것이 현재의 檀君敎 내지 大宗教라는 것이다.¹⁹⁾

특히 李能和가 編述한 「朝鮮佛敎通史」(下編) “朝鮮古代神敎已行”에 인용된 神檀實紀·續宛委餘編·東事類考·滿洲志·神事志, 그 외 古記·古史의 記錄에 의하면 위 學者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綜合·紹介하면 檀君은 神人으로서 風伯·雨師·雲師 등 神官을 거느리고 神敎를 창설하여 主穀·主命·主刑·主病·主善惡 및 衣服·飲食·宮室·編髮 등 人間의 366事로서 黑水에서 漢南에 이르는 九族을 다스렸다 하며, 또한 각 시대에 따른 宗教의 명칭을 밝혀주고 있고, 檀君神敎를 부활시킨 것이 현재의 大宗教라 하고 있다.²⁰⁾

이상 古文獻이나 學者들의 著述에 의하면 외래의 仙·佛·儒 思想이 韓國에 傳來되기 전에 上古時代부터 神仙思想을 基本思想으로 하는 民族宗教와 아울러 固有經典과 戒律이 있었고, 花郎道 또한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본래부터 지닌 玄妙之道로서 民族宗教의 魂이라 하리만큼 新羅時代에 이르러 聖童으로 선발·구성된 特殊敎團이라 할 수 있다.

2. 花郎道の 두레 및 巫俗說의 誤謬

그런데 花郎道の 前身을 新羅 嘉俳의 경기대회와 같은 “두레”의 일종, 또는 巫俗思想 내지 토테

16) _____, 「朝鮮上古文化史」, 第二編 檀君朝의 業績과 功德, 第二章 三郎의 巡遊와 仙敎의 傳布, 上揭書, (上), p. 383.

17)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Ⅵ, 信仰, 서울:三星文化文庫, 1974, p. 148.

18) 上揭書, Ⅵ, 信仰, p. 151.

19) ① 金得輓, 「韓國古代道德의 研究」, 서울:白岩社, 1978, p. 68.

② _____, 「韓國宗教史」, 서울:白岩社, 1978, p. 83.

20)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影印本, 서울:中大韓國學研究所, 1977, 통권, pp. 546~547. 下卷, pp. 1078~1083 참조.

미즘의 일종으로 보는 見解들이 있다.

李丙燾은 「韓國古代史研究」 「古代南堂考」에서 “花郎道の 團體와 같은 것은 「男子두레」 특히 「若者두레」의 가장 代表的이고 尖端的인 것이며……嘉俳의 競技大會와 花郎徒의 生活樣式은 모두 原始新羅人의 純眞無垢 天眞瀾漫한 生活感情을 표현한 初期 두레의 傳統을 이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두레는 원래 結社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從來 社字의 訓을 흔히 「두레」라고 읽어왔거니와 그 語源을 캐면 納集·緊合의 意인 「드리」·「드레」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從來 우리 나라의 結社의 稱인 「徒」(Circle), 「接」(groop face to face), 「契」(Association), 「社」(Circle) 등의 漢字語는 모두 國語 「두레」의 譯일 것이다”고 하여²¹⁾ 花郎道를 新羅 嘉俳의 경기대회와 동일시하고, “화랑도”의 “도”를 오로지 “徒”로만 파악하여 花郎道の 淵源을 “두레”에서 찾고 있다.

花郎道는 실로 그 명칭이 다양하여 風月·風月主·風月徒·風流·風流徒·花娘·原花·源花·花主·花郎·花郎徒·花徒·郎徒·香徒·國仙花郎·國仙·國仙徒·仙花·仙郎·仙徒·仙人·先人 등²²⁾ 외에 花郎道·風流教·風月道라는 명칭이 있다.²³⁾

이와 같이 花郎의 명칭이 다양하고 花郎을 “徒”로만 지칭하는 것도 아닌데 李博士가 花郎道の 源을 두레에서 찾고 있는 것은 “화랑도”의 “도”를 오로지 “徒”로만 파악한 데서 오는 과오가 아닌가 한다.

崔南善은 民族宗教의 教團에서 지키는 信條와 德目을 風月道·風流教·花郎道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花郎道는 民族宗教의 特殊教團이었다. 이 때문에 風月徒·風流徒·花郎徒 등 “徒”字를 쓰는 경우는 花郎道の 教徒를 말하는 경우라 생각된다. 예컨대, 釋迦의 教理와 德目を 佛教라 하고 그 信徒들을 佛教徒라 함과 같다.

다음으로는 花郎道の 前身을 巫俗에서 찾는 見解이다. 柳東植은 花郎들이 山水間을 소요하면서 歌舞를 즐기고, 오늘날 巫俗에서도 歌舞를 주로 하며, 무당서방들을 花郎이라 부른다고²⁴⁾ 하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巫教가 新羅에 이르러 花郎道라는 文化的 꽃을 피운 것은 儒·佛·仙 등……外來高等宗教와의 創造的 習合의 한 所産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즉, 花郎道の 前身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巫教이고, 여기에 儒·佛·仙 등 外來高等宗教가 習合된 것이 花郎道라는 것이다.

첫째, 花郎道가 外來高等宗教를 習合했다는 근거를 보면 崔致遠鸞郎碑序의 語句中 “實乃包含三教”의 誤譯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한다.

둘째, 花郎道の 前身이 巫教라는 근거를 보면 花郎이 歌舞를 즐기고, 巫俗에서도 歌舞를 즐기기 때문에 兩者를 同一視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花郎들은 무당과는 달라 風流를 즐기고 서로 道義를 연마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賢佐忠臣과 良將

21)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博英社, 1981, p. 622.

22)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서울: 사원, 1979, pp. 118~119.

23) ① 上揭書, p. 118.

② 崔南善, 前揭書, p. 151.

③ 「三國遺事」卷第三, 塔像 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24) 柳東植, 「韓國巫教의 歷史와 構造」,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8, 2판, p. 88.

25) 上揭書, p. 92.

勇卒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大學生들이 Camping이란 이름으로 山水間을 소요하면서 歌舞를 즐기는 외에 서로 眞理探究에 힘 쓴다. 이는 花郎들의 行態와 방불하다. 그렇다고 이들 學生들을 무당이라 하지 않는다. 따라서 花郎道の 前身을 巫俗과 同一視함은 偏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현재도 무당서방(남성 무당을 지칭하는 뜻함)들을 花郎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호칭이 오늘날 어느 地方에서 불리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李朝時代에 와서 事大主義의 망상에 빠진 儒生들이 “화랑을 ‘화랑이’·‘활낭’이라고 천시하였다”고 한다.²⁶⁾ 오늘날 어느 地方에서 무당을 화랑이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지중 李朝時代弊風의 답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論究에 의해서 花郎道の 淵源을 巫俗에서 찾음은 偏見이요, 崔致遠鸞郎碑序의 오역에서 비롯된 과오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외에 花郎道の 淵源을 토테미즘인 三韓의 成年儀禮에서 찾는 學者도 있다.²⁷⁾ 이러한 見解는 花郎道の 명칭이 다양하듯 장구한 세월을 지치는 동안 地方에 따라 花郎들의 修練方法이 다양했어 터인데 그 중 局地的 修練方法만을 보고 花郎道の 前身을 토테미즘인 三韓의 成年儀禮에 비유한 과오가 아닌가 한다.

Ⅲ. 花郎道와 仙·佛·儒와의 關係

이상 고찰한 바에 의하면 花郎道는 원래부터 上古時代의 神仙思想을 계승함으로써 仙·佛·儒 등 三敎의 뿌리思想을 天賦的으로 이미 자체 내에 지닌 民族宗教의 合理的 特殊敎團이었다. 그러나 花郎道는 원래 合理的 思想이라 할 수 없는 두레 내지 巫俗思想에 불과하고 외래의 仙·佛·儒 思想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 때부터 花郎道가 合理的 思想으로 形成·發展된 것 같이 보는 견해들이 허다히 있다. 이러한 見解를 피력할 때, 引用하는 근거를 보면 그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崔致遠鸞郎碑序에 근거하고 있다. 이따므로 鸞郎碑序를 중심으로 花郎道와 仙·佛·儒와의 關係를 고찰하여 花郎道에 妙合되고 있는 仙·佛·儒가 固有思想인지 아니면 外來思想인지를 밝히려 한다.

1. 花郎道の 天賦的 仙·佛·儒 思想의 發生學的 淵源研究

崔致遠鸞郎碑序에 의하면 花郎道는 玄妙之道로서 “實乃包含三敎”하고 있다. 이말의 뜻은 仙·佛·儒 三敎의 뿌리思想을 원초적으로 이미 자체내에 지니고 있는 뜻이다. 그러므로 花郎道는 儒敎의 忠孝思想이나, 神仙道敎의 無爲思想이나, 佛敎의 慈悲思想등 仙·佛·儒의 뿌리思想을 天賦的으로 지니고 있다. 이따므로 花郎道の 仙·佛·儒 思想은 外來思想이 아니라 固有思想으로서 花郎思想을 분석하면 거기에서 仙·佛·儒 精神을 모두 挑出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따서 花郎思想은 이를 나누면 셋이나 모이면 하나인 一即三·三即一의 一物三面的인 三位一體思想으로서 花

26) 金斗憲, 「國民倫理」, 서울:大學文庫社, 1971, p. 309.

27) 劉明鍾, 「韓國思想史」 大邱:以文出版社, 1982, p. 13.

郎道가 體라면 仙·佛·儒는 用이 된다.

이러므로 만약 花郎道の 妙理를 바로 파악치 못하고 誤解할 경우, 花郎思想은 神仙思想같기도 하고, 佛敎思想같기도 하며, 儒敎思想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花郎道の 正髓를 바로 파악하고, 바로 認識한다면 花郎思想은 神仙思想만도 아니며, 佛敎思想만도 아니며, 儒敎思想만 아니라 이들 三敎의 思想을 天賦的으로 모두 지닌 圓融無碍의 三位一體 思想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固有戒律인 世俗五戒의 내용에 儒敎의인 德目과 佛敎의인 德目이 混融되어 있는 것도 世俗五戒가 花郎道와 同系思想이며 그 思想의 性格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그런데 문제는 仙·佛·儒 思想이 韓國에 傳來되기 전에 어떻게 花郎道가 그러한 思想을 지닐 수 있었느냐 하는 仙·佛·儒 思想의 發生學的 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檀君敎 또는 大宗教는 檀君時代의 古神敎를 舊韓末 羅喆·吳赫 등에 의하여 再生復活된 新興民族宗教이다. 그러므로 檀君敎와 花郎道는 그 基本思想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宗教의 經典 「檀理大全」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한얼님은 桓因·桓雄·桓儉이시니 桓因은 造化의 자리에 계시고, 桓雄은 敎化의 자리에 계시며, 桓儉은 治化의 자리에 계시니라, 하늘에는 그 보다 더 위에 계시신 이가 없으시며, 만물에는 그 보다 더 비릇된 이가 없으시며, 사람에게는 그 보다 더 먼저 된 이가 없으시니라,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이니 셋과 하나로서 한얼님 자리가 정해지느니라(이상 檀位). 또한 한배짐의 이치는 셋과 하나일 뿐이니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그 用이 없음이요,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는 그 體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는 셋의 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用이 되느니라(이상 檀敎)²⁹⁾

「檀理大全」의 한얼님은 桓因·桓雄·桓儉의 三神을 統合한 根本體이고, 桓因은 造化主(神), 桓雄은 敎化主(師), 桓儉은 治化主(君)로서 한얼님의 用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檀君敎의 思想은 한얼님을 나누면 造化主·敎化主·治化主 등 셋이 되고, 이 셋을 모으면 하나의 한얼님이 되는 一即三·三即一의 一物(한얼님) 三面(造化主·敎化主·治化主)의인 三位一體思想으로서 한얼님은 體가 되고, 造化主·敎化主·治化主는 用이 된다는 것이다.

安浩相은 「檀理大全」의 위 내용을 풀이해서 神仙道敎의 믿음과 앞의 대상은 神(桓因)이요, 佛敎의 그것은 스승(師, 桓雄 釋迦是尊師之稱)이요, 儒敎의 그것은 임금(桓儉即天, 王을 天子·天皇·天王이라, 王兵을 天兵이라, 王顏을 天顏이라, 王語를 天語라, 王威를 天威라 하는 등)이요, 또 우리 배달교인 檀

28) 世俗五戒가 固有戒律이라 할 때, 그것이 圓光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 本文의 內容을 간략히 소개하면, 實山과 籌項 두 젊은이가 찾아가 終身之誠를 물었을 때, “圓光이 말하기를 지금 世俗에 五戒가 있으니, 一曰 事君以忠, 二曰 事親以孝, 三曰 交友以信, 四曰 臨戰無退, 五曰 殺生有擇이니 이것은 世俗의 좋은 戒律이라”고 했다. 그 內容을 새겨보면 五戒를 圓光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世傳되고 있는 五戒를 圓光이 實山 등에게 口傳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敎育現場에서는 圓光이 지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앞의 註 13)의 ㉔에 의해서 찾아 보기 바란다.

29) 檀者 桓因·桓雄·桓儉也, 因爲造化之位, 雄爲敎化之位, 儉位治化之位, 在天兌上, 在物兌始, 在民兌先, 分則三也, 合則一也, 三一而神位定(이상 檀位), 大宗教之理 三一而已, 有一兌三 是兌其用, 有三兌一 是兌其體, 故一爲三體 三爲一用(이상 檀敎); “檀理大全”, 國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서울:三省出版社, 1979, 13판, pp. 390~393.

君敎의 그것은 이들 셋의 統一根本體인 한얼(禮=神·佛·天)이므로 배달교는 사실은 仙·佛·儒 三敎들의 뿌리를 포함하였다고 하였다.³⁰⁾ 즉, 神仙道敎는 桓因의 造化의 原理(造化主), 佛敎는 桓儉의 敎化的 原理(敎化主), 儒敎는 桓儉의 治化的 原理(治化主)이고, 檀君敎는 이 三敎의 原理를 天賦的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安浩相뿐만 아니라 斯界學者들이 公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檀君敎와 花郎道の 思想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즉, 檀君敎가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包含하고 있듯이, 花郎道 역시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包含하고 있다. 따라서 檀君敎의 仙·佛·儒가 造化·敎化·治化的 原理를 말하는 것이라면, 花郎道の 仙·佛·儒도 造化·敎化·治化的 原理를 말하는 것으로서 花郎道の 三位一體思想은 花郎道=仙+佛+儒를 의미함과 동시에 花郎道=造化의 原理+敎化的 原理+治化的 原理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花郎道에 內包하고 있는 仙·佛·儒 思想의 發生學的 淵源을 밝히면 天地의 原理를 造化·敎化·治化的 原理로 나누고, 이 세 原理에서 花郎道の 仙·佛·儒 三敎의 思想이 發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仙·佛·儒 思想은 人間의 歷史的 經驗이나 必要에 의해서 만들어진 人爲的 後天的 概念이 아니라 원래 先天的 自然의 原理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仙·佛·儒 思想의 基本原理는 印度나 中國에 局限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을 초월해서 天地間의 萬物이나 어느 人間社會에도 恒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先天的 自然의 原理를 體系化한 것이 民族宗教요 그 特殊敎團이 花郎道이다. 따라서 花郎道는 天賦的으로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並序”에 의하면 위 所論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仁·義·禮·智·信의 五常을 方位에 따라 나누니 動方(東方을 말함, 즉 東方은 萬物이 먼저 生動하는 곳이라 해서 東方을 動方이라고도 함)에 配置된 바가 仁이다. 仁은 三敎를 일으키나니 淨域(印度)에 나타난 이름이 佛이라. 仁심이 곧 佛이요, 佛目이 能仁이라³¹⁾ 했다. 즉 仁思想이 東方에서 나타나고, 그 仁思想이 仙·佛·儒 三敎를 일으켰으며, 淨域 印度에 나타난 것이 佛敎라는 것으로 佛敎는 물론 儒敎나 神仙道敎의 淵源이 東方이라는 것이다. 東方이 韓國을 의미한다는 것은 學界의 상식이다. 따라서 韓國은 仙·佛·儒 思想의 發源地라는 것으로 花郎道에 내포되고 있는 仙·佛·儒 思想이 外來思想이 아니라 원래 韓民族의 固有思想임을 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並序가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中國文化의 원형을 만든 殷나라의 憲法思想이라고도 할 洪範九疇도 東夷人의 所作이며,³²⁾ 道敎와 儒敎思想도 본래 東夷族에서 비롯된 것이며, 佛敎도 韓國思想을 수입했다고 믿고 있는 學者

30) 國民倫理學會編, 「韓國의 傳統思想」, (서울: 螢雪出版社, 1983), pp. 15~16.

31) 序曰五常(仁義禮智信)分位 配動方(東方萬物始生之方 故曰動方) 者曰仁 三敎(儒·佛·老)立 名現 淨域者曰佛 仁心則佛 佛目能仁則也; “有唐新羅國 故鳳巖寺 故諡 智證大師 寂照之塔碑銘 並序”, 國譯「孤雲先生文集」(下), 서울: 寶蓮閣, 1982, p. 238. 위의 國譯은 筆者의 解釋으로서 원래의 國譯과는 다소 상이함.

32) ① 崔仁, 「韓國學講義」, 서울: 昌雲社, 1975, p. 52.

② 姜舞鶴, 「弘益人間論」, 서울: 三信書籍, 1977, p. 14.

들도 허다히 있다.³³⁾

이상 崔致遠鸞郎碑序와 「禮理大全」 및 古記錄이나 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외래의 仙·佛·儒 思想이 전래되기 전에 花郎道는 이미 이들 三敎의 思想을 지닌 民族宗教의 特殊敎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引用한 古記錄이나 學者들의 주장이 너무나 놀랍고 앞으로의 韓國思想研究에 서 광을 비추어 주는 듯 하나 현재로서는 직접 실증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앞으로 더욱 더 學問研究를 통해서 증명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韓民族도 上古時代부터 獨自의 信仰과 思想을 가졌으며, 그 思想은 실로 광범하고 위대하여 花郎道에 내포되고 있는 仙·佛·儒 思想이 外來思想이 아니라 韓民族의 固有思想임을 자각하기 바랄 뿐이다.

2. 花郎道の 外來 仙·佛·儒 三敎受容說의 根據批判

앞의 所論과는 반대로 일부 學者들의 著述이나 論文 및 中等教育의 教材와 일부 高等教育의 教材에 花郎道가 固有의 巫俗思想 내지 傳統思想 위에 외래의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受容·習合·吸收한 半外來思想으로 기술되어 歷史發展의 原動力이 되었던 主體思想을 크게 曲解시키고 있다.³⁴⁾

이러한 曲解의 原因을 찾아보면, 그것은 특히 앞에서 수차 다루었던 崔致遠鸞郎碑序의 語句中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花郎道의 思想을 밝혀 주는 “實乃包含三敎”의 “包含”과 前文의 內容을 밝혀주는 “且如”의 誤譯에서 비롯되고 있다.

만약,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수용했다면 “包含” 대신 “包涵”을 썼어야 하고, “且如”란 用語도 다른 말로 代替되거나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包含”과 “且如”를 썼다.

辭典에 의하면 “包涵”이란 “밖으로부터 널리 모두어 싸다”는 뜻으로 包攝 또는 包容과 유사한 뜻이며, 同音인 “包含”은 包含量·包含率할 때와 같이 “이미 그 속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³⁵⁾ 따라서 “實乃包含三敎”란 “원초적으로 三敎(의 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天賦의 仙·佛·儒 三敎의 思想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包含”을 “包涵”의 뜻으

33) ① 崔仁, 前揭書, pp. 44~62.

② 安浩相, 「동아문화의 창조자」, 서울:배영출판사, 1977.

③ 宋浩洙, 前揭書, pp. 250~261.

34) ①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2, pp. 51~52.

② 金炯孝, “韓國精神史의 國民倫理學的 認識”,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國民倫理學」, 서울:博英社, 1982, pp. 160~162.

③ 閔東根, “韓國의 傳統的 倫理思想의 發見”,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韓國人의 倫理觀」(Ⅱ), 1984, p. 29.

④ 柳東植, 前揭書, p. 92.

⑤ 白世明, “한국사상의 由來와 將來”, 韓國思想研究會編, 「韓國思想叢書」(Ⅰ), 古代人의 文化와 思想, 서울:景仁文化社, 1973, p. 51. 이상의 冊字에 花郎道가 外來의 儒·佛·仙(道) 三敎를 수용 또는 習合 또는 吸收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5)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수정증보판, 包含과 包涵의 語意 참조.

로 해석하여 花郎道가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밖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크게 曲解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民族魂이 황무하게 되고 五千年의 花郎史가 一千五百年으로 축소되고 있다.

“且如”의 “且”에는 “또한”이라는 뜻 외에 前文을 대표하는 “이것”이라는 뜻이 있고, “如”에는 “무리·만약”이라는 뜻 외에 前文의 내용을 밝혀주는 “같다·비등하다·맞먹다”라는 뜻이 있다.³⁶⁾ 따라서 “且”는 “이것”이라는 體言이요, “如”는 “같다·비등하다·맞먹다”라는 用言이다. “且如”를 해석하면 “이것은……과 같다(비등하다)”는 뜻이다. “且如”의 뜻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且如”의 “如”를 무시하여 “且如”를 “또는·그래서·그뿐만 아니라·예를 들면” 등 접속사로 해석하고 있음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러한 과오로 驚郎碑序中 특히 後文을 誤譯하고 있다. 즉,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를 “예를 들면 집에 들어오면 孝道하고 나가 가면 國家에 忠誠하는 것은 魯나라 司寇(孔子)의 教旨요, 하염없는 일에 處하고 말 없이 가르침을 行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老子)의 宗旨요, 모든 惡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善한 일을 받들어 行함을 竺乾太子(인도의 釋迦)의 教化라”고 오역하고 있다. 즉, 花郎道가 孔子의 教旨와 老子의 宗旨와 釋迦의 教化를 받은 것으로 오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역으로 근거도 없이 花郎道가 창설될 당시 그 思想形成에 있어서 외래의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수용했다고 曲解되고 있다. 더우기 花郎道의 設置年度와 외래의 仙·佛·儒가 新羅에 전래되어 공인된 年度를 비교하여 보아도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수용했다는 見解가 부당함을 알 수 있다.³⁷⁾ 따라서 花郎思想에 妙合되고 있는 仙·佛·儒 思想은 後天的 外來思想이 아니라 天賦的 固有思想임이 분명하다.

다만 外來의 仙·佛·儒 思想이 전래되면서 花郎思想에 영향을 주어 한 때 심화발전하였으나 統一新羅와 高麗의 崇佛政策 및 李朝의 崇儒政策에 의해 固有의 民族信仰과 外來信仰 간에 主客顛倒의 現像을 이르게 되고, 또 花郎思想 자체가 仙·佛·儒 思想과 類似·近似함으로써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三教思想을 吸收한 것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위 所論에 대해서 學者에 따라서는 否定的 態度를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崔致遠先生이 新羅末葉 사람이고 외래의 仙·佛·儒 思想이 新羅末葉 이전에 新羅에 傳來된 것이 사실이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反論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서 설명코자 한다.

첫째,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思想을 吸收·消化한 그것을 보고 崔致遠先生이 國수주의적 愛國心에서 “國有玄妙之道”니, “實乃包含三教”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反論이다.

崔致遠先生의 略歷을 기록한 “釜山海雲台銅像碑文”에 의하면, 崔致遠先生은 12才에 入唐留學하여 28才에 唐을 떠나 29才에 歸國할 때까지 唐에서 그의 풍부한 學識과 우람한 文章으로 이름을 크게 떨친 大文豪요 大思想家요, 道人이다. 그뿐만 아니라, 唐에 대해서 功을 크게 세움으로써 唐의 大關內도 자유로 드나들 수 있는 紫金魚袋를 하사받을 정도로 唐에서 大歡迎을 받았고, 故國 新羅

36) 張三植, 前揭辭典, 且와 如字 참조.

37)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拙稿, “花郎道の 儒·佛·道 三教受容說 批判”,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인문학편, 1984. pp. 391~408 참조하기 바란다.

에 와서는 시기·질투로 킵박을 받았다.³⁸⁾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하면, 그가 事大主義者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國粹主義者는 될 수 없다. 「孤雲先生文集」을 보면 “有唐新羅國”이라는 文句가 수 없이 보인다. 이는 新羅를 唐의 屬國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國有玄妙之道”니 “實乃包含三教”라고 한 그것이 愛國的 國粹主義 立場에서 新羅를 높게 치켜 세우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崔致遠先生이 史學에 대해서 博學한지 의문이 되고, 後代人이 기록한 前代의 史實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反論이다.

崔致遠先生보다 더 博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新羅가 낳은 唯一한 大文豪요 大思想家요, 道人이다. 이러한 사람의 記錄을 믿을 수 없다면, 어느 누구의 記錄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崔致遠鸞郎碑序가 後代人의 記錄이라 하여 의심할 수 있으나,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라 하여 「仙史」라는 古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史家들의 史書가 모두 著者보다 前代에 관한 기록이지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史家들의 史書를 믿어야 한다면 당연히 崔致遠鸞郎碑序의 기록도 믿어야 하고, 더우기 韓國思想을 말하는 사람치고 崔致遠鸞郎碑序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생각할 때,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崔致遠鸞郎碑序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요, 韓民族思想史에 참으로 보배로운 글이라 아니할 수 없다.

IV 結 論

이상에서 花郎道の 前身이 “두레”나 巫俗思想도 아니며, 또한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수용했다는 學說이 崔致遠鸞郎碑序의 誤譯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을 밝혔다. 오히려 花郎道는 古來의 神仙思想을 계승한 民族宗教의 合理的 特殊教團이요, 그 思想的 構造가 실로 玄妙하여 仙·佛·儒 三教의 思想을 天賦的으로 이미 자체 내에 지닌 一物三面的인 三位一體 思想이었다.

여기에서 花郎思想은 원래 老·釋·孔의 仙·佛·儒 思想과 다른 듯하면서도 유사하고 그 보다 더욱 심오하고 광범한 思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仙·佛·儒의 三位一體思想이 韓民族의 主體 思想이요, 非合理的 巫俗思想은 枝葉的 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花郎道가 하나의 宗教團體였다는 그것은 崔致遠鸞郎碑序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 民族宗教가 적어도 新羅末葉 즉 崔致遠生存時代까지는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이나, 崔致遠生存時代 이전에 외래의 仙·佛·儒 三教가 新羅에 전래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 思想이 宗教的으로 황무지인 未開社會에 전래된 것이 아니라, 仙·佛·儒 思想을 天賦的으로 지닌 民族宗教가 先在하고 있는 거기에 전래되어 同化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現在의 仙·佛·儒 思想은 固有 思想과 外來思想의 混融이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外來思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8) 崔致遠, 國譯「孤雲先生文集」, 李潛玉編, 서울: 寶蓮閣, 1982, 海雲臺銅象碑文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仙·佛·儒 思想을 순수한 外來思想으로만 믿는 경향이 있으며, 非合理的 巫俗思想만이 韓民族의 固有思想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花郎道가 외래의 仙·佛·儒 思想을 수용했다는 曲說에서 기인된 것이요, 曲解된 내용이 數十年 내지 數百年 동안 教育되어온 精神史的 被害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도 曲解된 내용이 마치 定說인 것처럼 教育되고 있다. 이러한 教育行爲는 스스로 民族의 主體意識을 解弛시키고 被教育者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花郎思想은 물론 民族思想史와 연관된 모든 記錄을 재검토·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Summary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Hwarangdo and Confucianism-Buddhism-Taoism

Ahn Chang-buom

Hwarangdo (an elite military youth corps) was established systically in the age of the Silla kingdom, but it originated with the ancient religion in the age of Tangun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The ideas of Hwarangdo were really profound and were settled upon independently, containing its own inherent ideas before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were introduced into the Silla kingdom. The basic ideologies of these three religions are not artificial and acquired, but rather natural and congenital. The principles of nature in the korean national relig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principles of creation, enlightenment and governing; and the ideology of Confucianism-Buddhism-Taoism has originated with these three principles. The ancient religion of Tangun and the national religion were formed by Uniting and Systemizing the ideologies of these three isms. Hwarangdo can be described as a special education group of the national religion like the youth Clubs of Buddhism or Christianity.

However some historians try to find the antecedent form of Hwarangdo in Dure (a kind of farmers, work group) or Shamanism or Totemism and describe Hwarangdo even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as foreign ideas which were accepted from the ideologies of Confucianism-Buddhism-Taoism. Its evidence can be found in the preface of the Hwarangdo tombstone letters of Choi Chi-Won in Samguksagi (the history of three ancient korea kingdom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deas of Hwarangdo is responsible for the mistranslation of lthe tombstone letters and the incomplete consideration of the whole Hwarangdo ideology.

Therefore, in this script, the general ideas of Hwarangdo are illustrated, Hwarangdo is defined as a special education group of the national religion by the study of historical evidence, and the ideas of Hwarangdo which contain those of Confucianism-Buddhism-Taoism are illustrated not as foreign ideologies but as original and congenital ones with the evidence of the scriptures of the national religion.

In addition it was illustrated that Hwarangdo is trinitarianism and the korean national religion was formed independently before foreign religions were introduced, and the national religion was named according to each age.